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ACOA¹⁾의 이성관계 경험: 미혼성인여성을 중심으로*

강 향 숙*

한 인 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알코올 중독은 당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남길 뿐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인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유발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가진 ACOA의 이성관계를 미혼성인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탐구하여 이들의 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ACOA에 대한 적극적인 임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질문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성인여성들의 이성관계 경험은 어떠한가?”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연구 주제이자, 복잡하고도 내밀한 삶의 경험인 이성관계 경험을 총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병원 치료나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의 20~39세 딸 중 미혼여성 7명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824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고 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총 5개의 구성요소와 12개의 하위구성요소로 통합되어 구조화되었다. 구성요소는 1) ‘나’를 보다 :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는 정체성, 2) ‘너’를 보다 : 너에게 드리워진 아버지의 그늘, 3) ‘너’를 만나다 : 고슴도치 딜레마, 4) ‘우리’도 서다 : 관계를 조율하기, 5) 새로운 ‘우리’ : 다시 여행을 시작하다 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독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ACOA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그동안 알아낸 등의 자조모임에서 경험적으로 강조되었던 ‘분리’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이러한 ‘분리’를 위한 구체적 임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ACOA의 친밀한 관계 맺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기대에 대한 재고와 함께, 이들의 보다 긍정적인 이성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ACOA의 성(性)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알코올 중독 가정의 성인 자녀, 이성관계, 현상학적 질적 연구

* 본 연구는 강향숙(2013)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강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26(대현동 11-1)

Tel : 02-844-2284 E-mail : khs9033001@hanmail.net

1)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된 자녀(김혜련 등, 2004)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알코올 중독은 당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남길 뿐 아니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알코올 중독의 가장 해로운 결과는 알코올 중독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다(Shaw, 2009). 자녀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나이부터 절대적 존재인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문제 속에서 성장기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부모의 음주문제는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하고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의 위험을 높여(Shaw, 2009), 결과적으로 다양한 개인내적(intrapersonal),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문제를 야기한다(Harter, 2000).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인아이증후군(Adult Children Syndrome) 등의 부정적인 적응형태(박현선, 이상균, 2001)를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의 어려움이다.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것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특히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발달에 영향(Houlihan, 2001)을 주며, 이는 성인기에 더 큰 문제로 대두된다. 이들은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정상적으로 보이거나 오히려 높은 기능을 보여주다가 20대 중후반이 되어 친밀한 관계에서의 복잡성에 직면하면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Olmsted, 1997).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 가정의 자녀들이 이성관계나 결혼이라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중요한 생애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가치감을 확인하기에 끊임 없이 관계적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유영주, 1984)이며, 특히 성인 초기의 이성관계는 이후의 배우자 선택과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차정화, 전영주, 2002)이다. 이러한 이성관계는 원가족, 특히 부모와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원가족의 정신적 건강성(차정화, 전영주, 2002; 김순기, 2001), 원가족에서의 폭력 경험(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김해숙, 2004) 또는 부모의 부부간 친밀감(차정화, 전영주, 2002)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수준(Levin, 2004),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경험(엄혜정, 정혜정, 2006) 등이 성인기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원가족의 특수한 상황이 자녀들의 성인기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짐작하게 한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부여한 신뢰를 외면당했던 경험은 타인에 대한 신뢰 형성의 어려움(Black, Bucky & Wilder-Padilla, 1986; Steer, 2008에 인용됨)과 성인기의 높은 대인관계 불안(Williams, 1998)으로 이어진다. 특히 딸의 경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부모와의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으며(김혜련, 정선영, 김정희, 2004),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애착관계를 형성(Gallagher, 2004)하고 이성 관계에서 더 많은 불안과 회피 태도(Kelley et al, 2005)를 보인다.

원가족에서의 학대 경험 역시 성인기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Fiore(1997)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 가정의 자녀는 성학대에 취약하며(김명아, 2001에 인용됨),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다(Klostermann et al, 2011).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 이성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거나(Shaw, 2009), 성학대 피해자로서의 불안정한 관계 형성,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강한 남성 혐오감(오현숙, 2003)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어린 시절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알코올 중독자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익숙해진 “perfect doormat(학대 받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의 역할(Bantz, 2003)과, 과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어떤 경험도 자기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는(Woititz, 1985) 이들의 성향은 피학대 상황에서의 희생자 역할을 수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성인기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가져오거나 이후 결혼 생활의 어려움으로 연장된다. ACOA는 일반 가정 자녀들에 비해 결혼에 대해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의견이나 느낌(Larson & Thayne, 1998)을 가지며, 이는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결혼을 덜 하거나(Watt, 2002), 신체적, 언어적 친밀감을 덜 가지는 개인적인 상태를 선호(Fischer et al, 2000)하는 양상으로 연결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결혼생활의 질이 더 낮고, 안정성이 떨어지며(Watt, 2002), 중년기에도 더 낮은 결혼 만족도와 더 높은 결혼 갈등(Domenico & Windle, 1993)을 보임으로써,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가족 경험이 이성관계를 거쳐 결혼 관계에서까지 재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성관계와 결혼으로 이어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은 역기능적 알코올 중독 가정의 세대전이는 물론 ACOA의 삶의 질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임상적 관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ACOA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김

용진, 2009; 김정희, 2006; 이선화, 2004; 박현선, 이상균, 2001)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특성, 또는 음주문제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ACOA의 관계(relationship)에 주목했던 국외 연구들(Steer, 2008; Rangarajan, 2005; Gallagher, 2005; Houlihan, 2001; Williams, 1998; Olmsted, 1997; Colina, 1997) 역시 이성관계 경험의 다양한 국면 중 어느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봄으로써, 이성관계라는 복잡한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ACOA를 일반 가정 자녀와 비교하면서, 이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전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 형태의 하나로, 한 개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향후 결혼 생활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경험인 이성 관계 경험에 주목하여 ACOA의 이성관계²⁾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와 관련한 연구대상의 복잡한 세계를 전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알리고, 역동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Padgett, 2008) 질적 연구 방법, 그 중에서도 경험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들 경험의 주관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는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ACOA에 대한 통찰력을 임상가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 미혼

2) 본 연구에서 이성관계(romantic relationship)란 이성간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하여 낭만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서적, 신체적 친밀함을 경험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여성의 이성 관계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방 법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좀처럼 접근 할 수 없는 대상의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와 관련한 연구대상의 복잡한 세계를 전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알리고, 역동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Padgett, 2008) 중,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철학에 바탕을 두는 새로운 기술(descriptive)방법으로(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인간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탐구(이남인, 2005)하여 그 본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경험하지 않았던 현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홍현미라 등, 2008). 이를 통해 지각과 판단의 모든 복잡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경험되는 현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연구대상의 실재에서 그들을 파악하고 도울 수 있다(김분한 등, 1999).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미혼 성인여성의 이성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로, 연구 참여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20~30대 미혼여성”이었다. 참여자 선정은 기준(criterion)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AA나 알코올 상담센터, 또는 알코올 중독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이성관계의 경험이 가장 활발하거나, 그동안 이성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령대로 사료되는 20~39세의 여성으로 하였다. 세 번째 기준으로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을 선정함으로써, 결혼 생활 경험과는 구분되는 이성관계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네 번째 기준인 여성은 남성의 알코올 중독 유병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알코올 중독 가정 성인

자녀의 결혼 초기 관계에 이성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Kearns-Bodkin & Kenneth, 2008)를 바탕으로, 남성의 알코올 중독이 그 딸에게 미치게 될 영향력이 더 많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20세 이전의 미성년 시기에 음주가 지속되었던 아버지와 동거했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는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25세에서 39세까지의 7명으로, 이들 중 4명은 아버지가 현재까지 음주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4명이며, 3명은 따로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지금까지의 이성관계 경험은 최소 1회에서 최다 10회까지이며, 이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본인의 기준에서 이성관계라 규정되어지는 경험의 횟수를 의미한다. 또한 연구참여자 본인이 처음으로 이성관계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한 연령은 16세에서 30세까지 다양하다. 현재 이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명이며, 1명은 연구가 진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나이	현재 부의 음주 여부	현재 부와 동거 여부	이성관계 경험	첫 이성 관계 연령	현재 진행 중인 이성관계
A	32	음주 지속	별거	2회	20세	없음
B	32	음주 지속	동거	1회	30세	인터뷰 진행 중 이별
C	29	단주	동거	4회	18세	없음
D	39	음주 지속	동거	1~2회	25세	없음
E	34	음주 지속	별거	5회	17세	없음
F	25	사망	별거	1회	22세	있음
G	28	단주	동거	10회	16세	있음

행되는 도중 이별하였고, 4명은 현재 이성관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알코올 상담센터와 경기 지역의 치료 공동체, 그리고 알아년³⁾ 모임에서 선정 기준에 맞는 자녀들을 소개받아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7명이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에 걸쳐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각 연구 참여자별로 2회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인터뷰 1회당 평균 90분에서 120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심층 면접의 일정과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면접에 집중할 수 있고, 녹음이 용이한 조용한 장소로 결정하였다. 심층 인터뷰 이외에도 메일과 전화 통화를 통한 보완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

졌다. 첫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적이고 내밀한 주제로 들어가기 이전 라포 형성에 주력하였고, 또한 생애 과정과 이성관계 경험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주제인 이성관계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의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이렇게 녹음된 자료를 그대로 기술하여 자료화하였다. 이때, 면접 과정에서의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 침묵 등도 기록하면서 인터뷰 과정의 생생함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노력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언어 표현에 있어서의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나 어법상 맞지 않은 표현도 그대로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심층 면접 과정에서의 연구 참여자의 감정과 태도,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및 연구자의 느낌 등을 면접 중이나 면접 후에 현장 노트로 작성하여 이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필수적인 단계를 포함(Giorgi, 1985)하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Di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에 따른 자료 분석의 절차를 따랐다. 연구자는 첫 단

3) 알아년(Al-Anon)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친목으로 그들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간에 경험과 힘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친목이다(한국 알아년 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alaonokorea.or.kr>).

계로 전체 의미 획득을 위해 기술 전체를 읽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녹음 자료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고, 녹취된 내용을 2-3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 나갔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의 기술 내용을 읽으며, 연구자의 관점에서 의미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의미단위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지나치게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한 의미단위를 제외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의미단위들을 학문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확립된 학문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의 진술을 인용하거나 일상적인 용어 중에서 현상을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하여 전환하였다. 이렇게 변형된 의미 단위들에 대한 분석과정을 통해 12개의 하위구성요소와 5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해 내었다. 이렇게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 경험을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한 후 연구에 참여를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참여 동기를 밝힌 연구 참여자와의 첫 면담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제공한 후 문서화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내용이 녹음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녹음 내

용이 본 연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일은 없으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이유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진술된 내용의 인용은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질문이나 답변 거부, 또는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비밀보장을 위해 인터뷰 내용과 연구 결과물의 보관에도 유의하였다. 이를 위해 녹취록의 작성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인터뷰 녹취록과 기타 연구 진행 과정에서의 기록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 외에서는 기록물을 복사하거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출력물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개인 파일에만 보관하였다.

결 과

이성관계 경험의 구성 요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미혼여성의 이성관계 경험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표 2와 같다.

‘나’를 보다: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는 정체성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는 사실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성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중대 요인으로 부각된다. 이성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에는 중독자의 딸이라는 자신의 모습을 확대하고 과장하는 강박성이 보여진다. 이성 앞에서의 자신이 다양한 역할과 모습을 가진 통

표 2.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미혼성인여성의 이성관계 경험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요약
‘나’를 보다 :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는 정체성	사랑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할 존재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 수치스러운 자기 존재, 수치스러운 부모의 자녀, 부모의 사랑조차 받지 못한 존재, 남들과는 다른 존재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성 앞에서 자신을 비하함, 낮설고 서툴게 느껴지는 이성 관계,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과도한 자기 귀인과 죄책감, 사랑이라는 빛에 눌림
	이해받기 원하지만 감추게 되는 비밀, 알코올 중독자의 딸	들여다볼 수 없는 벽을 세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최대의 약점을 감춤, 온전한 이해와 수용을 바람
‘너’를 보다 : 너에게 드리워진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와 연인 - 너에게서 아버지를 발견하다	떨쳐내고 싶은 아버지의 기억, 남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시선, 남자의 접근을 성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경계함, 이성 에 대한 분명한 거리두기와 선긋기, 연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함
	왕자와 거지 - 이상과 다른 현실 속의 너를 보다	부모의 결핍을 연인으로 채우고자 함, 백마 탄 왕자님에 대한 바람, 과거 연인들에게서 결핍을 발견함, 연인을 선택하는 데 부족한 판단력
‘너’를 만나다 : 고슴도치 딜레마	처음으로 맛 본 행복	의미 있는 존재와의 친밀한 관계를 바램, 여타 관계들과는 다른 친밀함의 경험, 사랑 받는다는 느낌, 현실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줌
	사랑, 그 놈	연애가 힘에 겨움, 부모의 삶을 답습할까 불안함, 나를 잃을까봐 두려움, 계속되는 의심과 불안,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헛된 노력,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노력, 술을 매개로 하는 관계
‘우리’로 서다 : 관계를 조율하기	자기 중심적 희생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음, 상대에 의해 이끌려감, 자신보다 상대에게 우선순위를 둠, 사랑의 감정보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관계
	서로 곁도는 사랑 다가갔다 물러났다, 적당한 거리 찾기	다시 환상에 갇히다, 여전히 낮은 존재로서의 연인 연인간의 적절한 거리에 대한 의문, 다가감과 멀어짐에 대한 양가감정, 다가가기와 거리두기를 반복함
새로운 ‘우리’ : 다시 여행을 시작하다	다른 시선으로 보다	반복되는 부정적 패턴을 반성함, 답을 찾아가기
	다시 사랑을 시작하다	건강한 관계맺음에 대한 바램, 예전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

합적이고 총체적인 존재로서 인식되기보다는 알코올 중독자 딸이라는 정체성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성관계에서 이들은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부정하지만, 동시에 이성관계 파트너에게만은 ‘중독자 딸’로서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 받고 싶은 바람을 갖는다. 그 무엇보다 이해 받고 싶지만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 그것은 바로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는 정체성의 자신이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의 분열을 경험한다.

사랑받지 못한, 사랑 받지 못할 존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 여겨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스스로를 “존재 자체가 하자”라고 규정하며 결격 사유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을 비하한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객관적인 조건이나 현실과는 상관없는 주관적인 평가이다.

하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사랑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A)

스스로 하자(瑕疵)라 규정한 결여된 존재로서의 자신의 모습은 타인 앞에 드러낼 수도, 드러내서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인식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온전히 공개하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될 경우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 여긴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도 못하겠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해야 하는지 적정선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무시하고 떠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 얘기를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수치심이 많은 것 같아요.(D)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부모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들에게 부모는 음주나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기억되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존재이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부모의 존재를 이성관계 파트너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더구나 그런 수치스러운 부모에게조차 연구참여자들은 충분한 사랑이나 존중 받는 경험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아버지의 음주 문제가 가장 주목을 받게 되는 환경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 때로는 부모간의 갈등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쪽 부모의 편에 서게 되고, 이를 이유로 이들은 다른 쪽 부모에게 미움을 받으며 이들은 부모에게조차 배척 받는 존재가 된다.

아빠 살아계셨을 때에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아, 남자 친구가 나중에 인사드리러 온다면 어떡하지? 항상 이거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엄마랑도 상견례 갔는데 아빠가 술 취해서 어떡하지? 결혼했는데, 아빠가 맨날 전화해서 술 먹고 그러면 어떡하지? 맨날 이 말 했었거든요.(F)

우리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었어도, 술 마시는 중심으로 돌아가니깐 그런 거에

신경 쓰느라고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우리한테 신경을 쓸 겨를이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랑을 못 준걸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D)

저는 어떻게 느꼈냐하면 아빠랑 엄마랑 관계가 서먹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 없는 관계인데... 제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아빠가 원하는 여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닌데...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아빠 스타일 이에요. 그래서 아빠랑 잘 통해요. 엄마보다... 그래서 엄마는 그제 싫었고... 전 그래서 제가 미움을 샀다고 생각하거든요.(B)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알코올 중독자의 딸인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존재, 즉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에서 기인한 결함과 병리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다. 그런 자신에게 자신의 이성관계 역시 정상적이지 않음을 전제하고 바라본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반추한다.

제가 자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받는 걸 기다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며칠 전 어버이날 때 ‘아 내가 꽃 사면서 니네 엄마 아빠 꽃도 사 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냥 ‘아 그래 좋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 됐다고. 막 사양을 하잖아요. 그런건 내가 이상하잖아요. 못 받는거... 이런 거요. 사소

한데 이런데서 내가 못났다 싶은 이런 거 발견될 때마다 그냥 막 안 좋아요.(B)

개가 어느 순간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캐치 한 거죠. 네, 내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내 멘탈이... 그때 저의 아빠가 거의 술로 피크를 달렸고, 저희 집이 진짜 되게 심각할 때였거든요. 아빠가 거의 병원에 한창 들락날락할 때쯤 이었거든요.(C)

연구참여자들은 병리적인 자신에게서 이성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여겨 연인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이는 실제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죄책감이다.

싸우면 서로 좋은 사람 만나야지, 다른 사람 만나면 더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생각하면... 그쪽 상대방에게 미안함, 미안함이라기까지는 좀 그런데... 그런... 제가 뭐 되게 부족하고 못나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더 건강한 사람을 만났으면 편하고 그렇게 열 올리고 싸울 일이 덜 했을텐데, 그런 생각...(B)

이해받기 원하지만 감추게 되는 비밀, 알코올 중독자의 딸.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은 연인을 포함한 타인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은폐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완벽한 모습이 되어야 누군가의 연인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기하게도 어릴 때부터도, 그러니까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도 늘 술 먹고 얘기하면 그래도 너는 무슨 벽이 느껴진다 고... 근데 제가 벽 많이 치거든요.(A)

완벽해지려는 것, 똑똑해지려는 것이 연애에서도 있지만 제 생활 전반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벽이 많이 느껴진다고도 하고. 딱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중략> 저는 누구를 이렇게 그냥 가슴만 열고 다가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하고 싶어요. 벽을 치죠, 먼저.(C)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는 사실은 연구참여 자들에게 가장 은폐하고 싶은 자신의 최대 약점이다. 가장 부정하고 싶고 외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많은 것을 공유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기억이나 경험은 결코 공유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나겠다. 나를 비밀 삼아 공격하겠지? 이걸 나의 최대의 약점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하면 곤란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처럼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이해도 못할 테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D)

아빠 얘기는 깊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웬지 솔직히 말하면 창피한 것도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보는 선입견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꾸로 생각했을 때, 제가 그냥 평범한 가정의 딸

인데 저 남자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을 좀 그렇게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한 것 같기도 해요.(F)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동시에 이들에게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는 자신의 모습은 연인에게 가장 이해와 수용을 받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다. 자신이 ‘중독자 딸’이라는 사실을 이성관계 파트너에게 이해 받고 수용 받지 않는 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할 수 없다. 가장 이해 받고 싶지만 드러낼 수 없고, 드러내지 않기에 이해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이들에게 반복된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말해요. 나쁜 거는 말 안 하는 거 같아요. 아빠 술 드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팠던 거 그런 건 전혀 말하지 않고, 우리 집은 행복한 집안이라고... 근데 그게 되게 괴리감 느껴져요. <중략> 나의 과거는 되게 상처도 많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말해야지 나에 대해서 다 말한 것 같다는 그런 찝찝한 감정?(G)

나는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누군가와 같이 공유하고.. 나의 아픔을 좀 위로 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는 위로를 못 해주는... 그리고 그런 거와 동시에 되게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의 그런... 부분들.. 상처를 보고.. 불쌍하구나.. 그리고 너는 그래서 너가 그렇구나.. 이런 시각으로 저를 보는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계속 아픔을 줄 거... 그

런 것들이 저는 되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 왔던 것 같아요.(E)

‘너’를 보다: 너에게 드리워진 아버지의 그늘

이성관계 파트너를 바라보는 연구참여자들의 시선은, 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과 닮아 있다. 어디까지가 아버지에 대한 시선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남자에 대한 시선인지 구분이 힘들만큼 혼재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남자는 거부하고 싶었던 부모와, 갖고 싶었던 부모의 모습을 모두 투영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들은 부모가 그랬듯 파트너 역시 자신에게 상처를 줄까 경계한다. 동시에 부모에게 간절히 원했지만 충족 받지 못했던 것을 이성관계 파트너에게 기대하며 꿈에 그리던 부모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완벽한 연인에 대한 바람은 현실에서 좌절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파트너는 어린 시절부터 누적되어 왔던, 부모의 몫까지 덧붙여진 비난을 받게 된다. 남자에 대한 경계와 기대의 공존, 기대와 연결된 비난, 그리고 비난이 다시 무시나 경계의 시선으로 귀결되는 악순환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시선은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아버지와 연인 - 너에게서 아버지를 발견하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첫 이성이었던 아버지는 이들에게 이성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자녀들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초라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폭군과 같은 존재였다. 특히 아버지의 애정 표현에서 부적절한 성적 뉘앙스를 느끼게 되는 경우 이는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

들의 수치감이나 경멸감으로 연결된다.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아버지란 존재는 무시할만한 존재였거나,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경계의 대상이었다.

별로...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본 남자 어른들이 다 별로였거든요. 다 무기력하고, 권위주의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무기력하고...(A)

아버지는 자기의 하나의 지켜야 하는 그런 게 공격을 당하니까 버럭 하신 거예요. 저도 같이, 아버지는 전혀 무섭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막 소리치면서,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심리적 으로...(E)

어릴 때 왜 아빠가 애들 놀리는 식으로 그랬던 게 좀 상처가 되었던 적은 있어요. 우리 딸 가슴이 얼마나 커졌나 한 번 만져 보자... 그건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요.(C)

그때 술 먹고 와서, 중학교 때 술 먹고 와서, 계속 포옹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제가 자는데 위에 누워 있었다거나...(B)

아버지에 대한 시선은 그대로 남성들에게로 연장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남자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신뢰의 시선보다는 무시나 경계의 시선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시선은 상대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기보다는, 상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시선이며, 모든 남자에 대하여 일반화되

는 시선이다. 이러한 시선은 무시의 시선이거나 또는 경계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무시와 경계의 혼재된 시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딸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접근을 경험했던 경우, 이러한 무시와 경계가 공존하는 시선은 모든 남자에 대한 거리두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성이라는 존재의 어떠한 형태의 접근에도 부여되는 이러한 경계심은 두려움의 형태이거나 불쾌함과 경멸, 또는 수치감의 형태로 드러난다.

일단은 남자는 방어하고, 일단 처음부터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E)

개도 수컷은 싫다고..(A)

남자를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 성별로만 보고. 성별이 남자다. 많이 배웠나, 집안이 어떻다, 얼굴이 잘 생겼나, 이런 걸 안보고 딱 한 가지 성별이 남자다 그러면 경계심을 가지거든요. 조금만 가까이 오면, 저는 또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D)

남자에 대한 일반적 시선 뿐 아니라 자신의 연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아버지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실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만났던 과거 연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들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끌리기도 하고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이별을 결심하기도 한다. 때로는 파트너의 어떤 모습만을 확대하여 집요하게 바라봄으로써 결국 그는 아버지와 닮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맹목적으로 유도해 내기도

한다.

그 사람은 우리아빠랑 닮은 점이 많았어요. 허세부리고 속은 텅 비었는데 남들한테 잘난 척하고 남들이 혹시 무시할까봐 방어치는 사람들...(C)

그 사람도 우리 아빠랑 닮은 사람이었어요. 속이 허한 사람 같아요. 텅 비어 있는 사람. 남들 앞에서는 목을 쳐들면서 잘난 척을 하고 우리 아빠 허세부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남한테 차갑게 대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중략> 익숙했기 때문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랑 너무 비슷하잖아.(D)

처음에 초반에 그 사람한테 딱 저희 아빠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신기했어요. 제가 정말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나야지, 안 만나야지. 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뭔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 어떻게 고쳐 주고 싶은데... 고쳐 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F)

왕자와 거지 - 이상과 다른 현실 속의 너를 보다. 연구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과는 달리, 이들의 기대 속에서 이성관계 파트너의 모습은 이상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이성관계 파트너의 모습에는 그동안 부모에게서 느꼈던 아쉬움이 반영되고 있다. 현실의 부모가 줄 수 없었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했더라면’하고 바래왔던 것을 연인에

대한 바람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또 다른 부모”를 찾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애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연인들은 이들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아빠처럼... 아빠가 뭐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또 다른 부모를 찾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나를 좀 보살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자격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신적으로, 거의 신같이...(A)

저의 감정적인 부분은 그 사람이랑 다 공유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나 상처 났어. 오빠’ 이렇게 전화하는 그런 거죠. 무슨 저한테 무슨 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엄마 아빠를 찾아야 하는 게 사실인거잖아요. 근데 ‘오빠 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엄마 아빠보다 저한테 더 중요한 존재였던 거죠. 그때는. 내가 가진 어리광, 내가 엄마 아빠한테 부리고 싶은 어리광이나 아니면 내 고민, 그런 걸 그 사람이 다 들어줬고...(C)

이성관계 파트너에 대한 이상화는 결함 많은 존재라는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자기 자신조차 외면하고픈 자신이지만, 이들은 그런 자신을 사랑해 주고 자신의 모든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연인의 모습을 꿈꾼다. 알코올 중독자 자녀인 자신은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연인만이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타개

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결국 이들에게 연인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까지 이상화 된다. 하지만 이런 이상형이 현실에서 과연 존재할까에 대해 스스로도 물음표를 던지게 될 만큼 이들에게는 꿈과 같은 존재이다.

하느님처럼, 저를 되게 무조건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원했구요. 그게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랑 뭐 이런 거... 영혼, 찰떡궁합,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A)

(이상형이) 내 모난 부분에 찢려도 아프지 않을 사람, 찢려도 괜찮은 사람, 둥글둥글하게 살처럼 이렇게 찢려도 다시 되돌아오는, 들어가 있지 않고, 내 모난 부분에 찢려도 그냥 다시 둥글둥글 자기 살이 차오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A)

뭔가 영적이라거나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넓은 사람인 거 같아요. 조금 더... 내가 아무리 나만의 생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걸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넓이가 있는 사람 같은...(E)

하지만 그동안의 이성관계 경험에서 현실 속 연인은 연구참여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고, 이들은 실망을 경험한다. 이들은 이전 연인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결여된 존재이며, 자신이 “습관적으로 아픈 남자”를 만나 왔다고 스스로 결론 내린다. 관계가 종결된 지금, 다시 예전의 관계를 반추하며 이들은 예전 연인들의 단점이 두드러지게 보여짐을 경험한다. 이러한 단점의 부각은 연인

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무의식적인 불안이나 의심으로 인한 강박적인 관찰과 몰아가기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에겐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었던 어떤 모습들이 결합이라는 형태로 두드러지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연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결합은 연구참여자들의 남자에 대한 무시와 경계의 시선을 강화하게 된다.

저는 돈 없는 놈, 몸이 건강하지 못한 놈, 그 다음에 멘탈이 건강하지 못한 놈, 그리고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놈, 등등을 만나 봤는데요. 저의 연애 경험은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다 채워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C)

그 사람도 우유부단하면서 열등감도 많고 의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판단 못하는 거를 나보고 판단하라고 내 앞에 떨어뜨려 놓고, 열등감도 많고. 나한테 접근하기에는 자기의 열등감의 벽을 뛰어넘어야지만 나한테 비로소 올 수 있는... 그 사람도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D)

저랑 되게 똑같은 거 같아서... ‘이 사람도 상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F)

연구참여자들은 결합을 가진 남자들을 만나는 부정적 패턴이 반복된 이유로 스스로가 남

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상황과 연인을 평가할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저의 문제가 사람 잘 대해주면 열등감이 많아서인지 이 사람이 잘해주나 못 대해주나 이런 거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 사람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하는데 나를 대해주는 태도에 휩해서 잘해주면 넘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D)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 졌을 때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빠가 병원에 들어가셨었고, 병원 들락날락 하는 거를 제가 대학 때 한창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략> 그러니까 제가 의지할 데가 없었죠. 사실은 저도 의지할 데가 필요한 건데... 그 의지할 대상을 남자 친구한테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가진 조건이나, 그 남자가 가진 배경이나 남자가 하는 말 같은 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급급했기 때문에...(C)

‘너’를 만나다: 고슴도치 딜레마⁴⁾

원가족 내에서 방임이나 갈등을 경험하며, 자신이 사랑 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못했

4) 쇼펜하우어의 우화 中 <고슴도치 딜레마>

“겨울날 아침, 한 쌍의 고슴도치가 추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데우기 위해 몸을 마주했다. 그러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몸에 돋은 수많은 가시가 서로를 찔러댔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다. 고슴도치는 딜레마에 빠졌다.”

던 연구참여자들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그럼에도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는 이들에게도 엄연히 존재하며, 충족되지 않았던 결핍된 욕구의 도발은 더욱 강력하다. 어린 시절부터 이들이 경험한 세상은 너무나 추운 곳이었고, 부모의 대리인인 연인은 온기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 실제 이들의 이성관계 경험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현실을 피해 숨을 수 있는 훌륭한 도피처가 되어 준다. 그 안에서 위로와 함께, 어디에서든 느낄 수 없었던 친밀함과 사랑 받음의 경험을 갖게 된다. 하지만 온기가 따뜻하면 할수록, 이성관계 안에서 의심과 불안,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을 경험한다. 온기와 아픔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가지도, 멀리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처음으로 맛 본 행복.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현실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중압감으로 작용한다. 가장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존재인 가족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이들은 그 고단함을 혼자 감내해 왔다. 이성관계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에게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 받음의 경험도 갖게 된다. 이러한 사랑함과 사랑 받음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고 들어 주는 관계로, 또는 신체적 스킨십을 나누는 관계로 경험되어지며, 이는 몸과 마음의 소통으로 확인된다. 이성관계를 통한 행복한 “신세계”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현실과 대비되어 연구참여자들

에게 더욱 절박하게 인식된다. 그리고 이러한 절박함은 연인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도피처의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성관계 경험은 그들의 당면하고 있는 갈등과 고통으로부터의 심리적 완충장치라는 긍정적 역할과 함께,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게 하는 현실도피의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제가 술 먹고 노래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애 허벅지에 아마 이렇게 하고 잔 모양 이에요. 근데 등을 쓰다듬어 줬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고 좋은거예요. 그게... 너무... 지금도 되게 좋... 그 느낌이... 그게 너무 고맙고 좋더라고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해 주는 사람도 있네.’ 이러면서...(A)

처음이었다니까요. 저희 집은 생일 챙겨 주지도 않고, 제가 그 챙겨 받음을 받고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무도 이렇게... 무슨 뭐 축하를 받고 그러면 이유가 필요한데, 제 생일은 그런 축하의 이유가 되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그런 걸 받아보고 나서, ‘이런 축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구나. 집에서...’ 그런 거 없이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받으니까 좋잖아요.<(B)>

그때 저의 아빠가 거의 술로 피크를 달렸고, 저희 집이 진짜 되게 심각할 때였거든요. 아빠가 거의 병원에 한창 들락날락... 아니구나. 아... 한창 들락날락할 때쯤이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위안을 되게 많이 받은 거였죠. <중략> 그때 생각해 보

면, 제가 그때 진짜 저의 모든 생활을 다 놓고, 우리 집은 최악이었고, 제가 개랑 만나는 걸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던 때여서...(C)

혼자 외로움도 많이 타는 편이었고, 누군가한테 인제 어떤... 음... 의존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싶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어딘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난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니까? 집에 가거나, 어떤 다른 부분... 집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세계가 있어'라는 거기에... 이런... 현실을 회피?? 그런 것도 한 몫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되게 불안했어요. 남자 친구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고...(E)

사랑, 그 놈.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성관계는 행복 뿐 아니라 고단함과 고통을 동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고단함과 고통은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부모를 통해 갈등하거나 단절된 남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성장한 이들은 친밀한 남녀간의 건강한 관계 맺음이 서툴고 어렵게 느껴진다.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웠던 원가족 환경은 연구참여자들의 사랑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불안을 야기한다. 이러한 불안은 자신이 부모와 같은 삶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이러한 답습을 막기 위한 나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태도나 술의 힘을 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전 남자 친구랑 사귀었을 때도 제가 살

이 10kg이 빠졌었어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서 엄마는 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이 다 반대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맘고생을 정말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귀면서...(F)

좋아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안 좋아하고 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해야지, 왜 나는 이렇게 더 괴로운가.(A)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불안의 기저에는 자신이 부모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자신이 보아왔던 결혼 생활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는 부정적 전망에 대한 보다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실체를 잡을 수 없는 긍정적 미래보다는, 익숙하고도 구체적인 부정적 미래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보다 명확하게 그려진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와는 다른 삶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실현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 때문에 이들은 결혼을 아예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예상되는 부정적 미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내가 먼저 외면해 버리는 '여우의 신포도'와도 같은 것이다.

결혼이라는 자체도. 우리 부모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나도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건 오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전에는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이혼을 먼저 생

각했거든요. 결혼 생각하면 엄마가 항상 앓혀 놓고 했던 말이 ‘너희들 없었으면 벌써 이혼을 했을 거야.’ 그러셨거든요. <중략> 결혼에 대해서 좋은 모습이 없고 ‘부부간의 사랑이 뭐가?’ 하는... ‘부부간의 사랑이 있는 건가?’ 느낌으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런 가정을 꾸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D)

‘내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엄마랑 다르게 남편한테 대할 수 있을까? 우리엄마 아빠한테 욕하고 깔아뭉개고 그랬는데 나는 서로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들고...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것 같아요.(D)

그냥 저 혼자 집에서 생각했을 때, 그 사람과의 미래를 꿈꿨을 때... 웬지 우리 아빠랑 엄마같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 이런 게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F)

지금까지 보아왔던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이성관계 파트너에 대한 집요한 의심의 시선으로 불안을 가중시켜 나간다. 연구참여자들은 연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항상 불안하다. 부모에게조차 사랑 받지 못했고, 부모를 신뢰할 수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연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자신의 바람과 기대를 좌절시켰던 부모에 대한 기억은 언제 또다시 파트너로 인해 실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를 하게 만든다. 여러 객관적 증거들이 연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어도, 조금의 의혹이 발견되면 혼

자만의 부정적 생각으로 불안을 확대해 나간다. 불안은 상대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줄 때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도 하지만, 곧 다시 반복된다. 때문에 이들은 또다시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이는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늘 의심조사 하는 삶, 그리고 인제 연락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 한다. 그러나? ‘혹시...’ 전혀 아무 일 없고 그런데도 내 내심 속으로는 ‘아 애가 왜 연락이 없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좀 있어요.(A)

그 불안함이 저도 되게 마음이 신기한 게, 그 사람이 여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막 술 먹고 허튼 짓 하는 사람도 아닌 것도 아는데, 왜 그렇게 제가 불안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생각하면 제 자신이 되게 웃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빠지던 살이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이 빠지고... 왜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고생을 했나 싶을 정도로... 왜 그렇게 불안해했나 모르겠어요.(F)

불안은 연인의 사랑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로 이어진다. 연구참여자들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계속적인 시도를 하지만 확인을 통한 안도감은 잠깐에 한정될 뿐이다. 시도는 반복되고, 이는 오히려 상대를 지치게 함으로써 관계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로는 연인의 사랑에 대한 이러한 불안과 의심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온전히 그 사랑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신이 받을 상처가 두려워 아예 먼저 상대를 떠나 버리거나 너무 많이 좋아하

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인해,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는 아이러니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사람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게 연락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나한테 감동을 주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자가 저한테 표현했을 때는 ‘아...’ 다시 평정심이 오다가, 며칠 지나서 또 다시 일상이 되어서 패턴이 이렇게 되면 또 불안해지고...(F)

내가 먼저, 다 먼저 떠나왔죠. 그러기 전에... 친구도 그렇고, 뭐든지 그냥 제가 먼저, 연락을 일방적으로 안 해 버리고,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고 하는 관계였고. 그 뒤로는 그렇게 버림 받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일을 안 만들었어요. 아예, 전혀...(A)

때로 이들은 이성관계에서의 힘겨움을 돌파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그래왔듯 술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연구참여자에게 술은 좋은 사람과의 상호작용 방법이나 어색함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를 진전시키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학교 다닐 때는 술만 계속 같이 먹었고...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런 것만 있었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

고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뭘 해야 되는지, 뭘 나눠야 되는 건지를 전혀 몰랐던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니까 술을 자꾸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A)

‘우리’로 서다: 관계를 조율하기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주는 관계의 모습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절된 관계이자,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밀착된 관계라는 상호 모순된 모습이 공존한다. 이들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억압하고 상대에게 맞추으로써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경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사라지고 ‘너’만 남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나’의 사라짐이 ‘너’와는 상관없는 철저한 ‘나’의 의지이자 ‘나’를 위한 것이라는 데 아이러니가 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연인의 욕구에 기반한 노력이라기보다 자기 혼자만의 일방적 노력이다. 이는 버려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며, 자신의 필요에 의한 노력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상을 투영한 대상으로서 바라본 채, 그와의 소통이 단절된 피상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에게 연인은 여전히 낯선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이들의 관계는 진정한 ‘나’로서 상대를 대하지도, 그렇다고 진정한 ‘너’를 만나지도 못하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밀착과 단절이 공존하는 관계 속에서, 이들은 연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찾기 위한 다가감과 거리둠을 반복하게 된다.

자기 중심적 희생. 연구참여자들은 연인과 의 관계에서 동등하게 존중 받는 관계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보다는 상대나 주변의 의견에 따라 관계가 시작되며,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 욕구를 억압하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삶의 대한 통제권을 위협당하거나 상대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맞닥뜨려도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즉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내가 잘못하면 상대방이 떠날 수도 있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러거든요. 말도 함부로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중략> 내가 좀 잘못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공포가 있어서... 좋아하면 되게 잘해주는 편이구요, 별로 짜증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내고...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A)

제 살인지 남의 살인지 구분 안 되는 거 같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러는 것까지는 못 참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보면 ‘왜 그걸 참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상 당할 때는 화도 안 내고...(B)

선보러 나갈 때 ‘상대방이 나를 좋다고 하면은 나도 좋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저는 그리고 상대방한테 아무감정이 없는데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나도 좋아해야 하나?’ 그러고 있더라니깐요.(D)

(섹스를) 즐긴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요구해서 들어준 거...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요구를 하면 다 수용하는 편이었어요. 제 의견이 별로 없었어요.(C)

자기 주장이나 감정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 감정은 사라지고 연애와 삶에서의 모든 것이 연인에게 맞추어지게 된다. 자신보다는 연인이 1순위가 됨으로써 자신의 삶은 온전히 사라지고, 연인이 삶의 모든 것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연인에게 몰두함으로써 친구와 가족을 방치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방임하게 된다.

우선되지 않았죠. 없었다기보다는 우선되지 않았어요. 축이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제 감정은 우선시 되지 않았죠.(A)

내가 없고, 내 삶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가 먼저, 그 오빠가 먼저인 거예요.<중략>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나를... 나를 온전히 버리는 거야.(G)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버려지지 않거나 외롭지 않으려는, 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행위인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성관계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외로움이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

정서적으로 힘들었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부분, 조건들이 나를 이 지금 있는 현실에서, 집에 있는 현실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외롭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누군가 달려와 줄 사람이 있고, 누군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누군가의 수단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좋아하거나, 이 사람 아니라고 너무나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만났어요.(E)

제 여태까지의 연애는 목적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을 구한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C)

서로 곁도는 사랑.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계가 사라지고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과 모순되게, 연구참여자들은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소통이 단절된 피상적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부모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장단점을 통합하는 유연한 시선을 배우지 못했기에, 연구참여자들의 완벽한 연인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는 견고하고 과대하다. ‘망상’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기대는 환상의 형태로 이성관계 파트너에게 투영된다. 환상의 투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며, 이러한 환상이 발생하고 작동하게 될 때 이성과의 낭만적인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환상의 유지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의 직면과 연인과의 소통을 거부한다. 이들에겐 연인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이 생략된다. 대신 자신의

상상으로 그 진실을 대체한다.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채 피상적인 관계로서 유지된다. 결국 연인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알다가도 모를 사람”, 즉 낯선 타인으로 존재한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외로움은 연구참여자의 이성관계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완전히 그 사람한테 흠뻑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내 상상의 어떤, 내가 그 사람의 매력적인 한 부분을 보고 그 부분에만 빠졌지, 그 사람 자체에는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인 부분에 빠졌다가 조금씩 그 사람 자체를 보면서 다시 그냥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면서부터 그냥 또 다시 제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E)

제대로 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고,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뭐 꿈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보려고도 들어보... 묻지도 않으니까. 사실, 질문도 안 하니깐. 그런 거를 전혀 알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뭐 그 친구도 괴로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전혀,, 지금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환상. ‘애는 정말 완벽한 애다.’ 그냥 그런 거, ‘애는 정말 좋은 애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정말 알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A)

다가갔다 물러났다, 적당한 거리 찾기. 연구참여자들의 이성관계는 연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부모를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리와 공유의 적절한 조율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적절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으면서, 동시에 이성관계 파트너와 상호 소통을 통해 교류하는 과정에 서툰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와 융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 대해 갈등한다. 관계에서의 과도한 밀착으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고, 또는 단절된 관계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지난(至難)하다. 이 과정에서 연인과의 가까운 관계를 바라면서도, 정작 가까이 다가오면 스스로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의 이성관계는 밀착과 단절이 공존하고 거리두기와 다가가기 반복되는, 모순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과정이 된다.

누구한테 확 의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나의 존(zone)을 가지고, 벤다이어그램처럼 일부는 겹치고 나머지는 나의 영역을 지켜야 하는데, 그 정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늘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을 잘 못해요. (지금까지의 연애는) 너무 내 영역만을 지키거나 혹은 너무 둘이 합쳐진 거죠. 그 선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는가?’(C)

그냥 연애... 제가 느꼈을 때, 연애라는 게 좋으면서도 힘들고... 또 남자 친구가 없으면 또 있고 싶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행복한데 힘들고 이런 것 같아요.(F)

많이 두렵죠. 너무 두려워서 나 혼자서

피했다가, 연락도 끊었다가, 다시 친했다가...(누군갈 좋아하는 것이) 예... 너무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다가도 제가 좀 멀리 하고 그래요. 멀리 했다가, 다시 가까이 갔다가, 멀리 했다가...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A)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감정으로 대해주길 바라면서도, 상대방이 조금만 가까이 오면 나는 또 도망가고 피하고...(D)

새로운 ‘우리’: 다시 여행을 시작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병리성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자신의 관계가 건강한 모습 이기를 간절히 염원하지만, 자신들의 이성관계 경험에서 부정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한다. 뭔가 다른 모습을 바라며,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의 시선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예전과는 조금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더딘 제자리걸음이지만 이들은 또 다른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시선으로 보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성관계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듯 부정적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듯 보여진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전 이성관계 경험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스스로 내리며, “실패”, “헛연애” 또는 “같은 짓”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자신의 관계 경험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문

제 제기와 성찰의 과정을 제공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성관계에서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 또한 아직은 자신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였음을 인식하고 있다.

예전에는 같은 짓을 반복했거든요. 1, 2, 3번이 똑같은 짓을 반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 스페어 아이도. 실은 같은 짓을 반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지하고, 내 꺼 생각 안하고... 근데 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만 사실 같은 거죠.(C)

다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꼭 또 눈은 그런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제 머릿속으로는 좀 그런 사람을 꿈꾸는데, 꼭 눈은 술 잘 먹고, 재밌고, 뭐 술 잘 먹는다고 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꼭 술을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엄마랑 제 친구들한테 몇 번 말한 게 있는데, '정말 되게 습관처럼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구나.'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F)

지금도 말하다 보니까 '남자 친구랑 왜 친밀하지가 않지? 뭔가 왜 그의 집안에 대해서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지?' 그런 생각인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거지?' 그런 생각...(G)

다시 사랑을 시작하다. 연구참여자들은

행복과 고통, 밀착과 단절의 관계를 오가며 관계의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성관계 경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변화의 필요성을 발견해 나가게 된다. 변화의 끝에 자신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지는 못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이성관계는 이어진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건강한 이성관계의 정답을 찾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이들의 이성관계의 모습은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한다.

이제는 제가 좀 남자를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5보까지 용기가 없어서 못 다가가겠어요. 2보 정도는 나 여기 있어 이 정도는 한번 해볼까. trial and fail이런 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는 몰라요. 이 모든 게 열 번의 소개팅을 통해 얻어진 거예요.(C)

'이거 아니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아이구, 내가 그렇게 내 욕심을 보고 사람을 만나니까 역시나 나한테도 큰 상처구나.'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람한테만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내가 더 아픈 거였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예전처럼 남자를 막 만나고 그랬던 게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E)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연애하는

거는, 지금은 남자친구보다 내가 더, 내 일이 더 먼저고, 내 장래가 더 먼저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오히려 저를 더 ‘너는 지금 바쁘게 사니까 되게 멋있는 애 같다’ 이렇게 오히려 하거든요. 저한테... 학벌도 오빠가 훨씬 좋은데,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자존감 이렇게 되가지고 되게 비하했을 텐데,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좀 오빠랑 대화하다 부족한 거 있으면 가서 공부하고 막 그렇게 대화를 막 맞추고, 그런 게 생긴 거 같아요. 바뀌었어요. 그런 게... 제 자신한테.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G)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미혼성인여성의 이성관계 경험의 본질

연구참여자의 이성관계 경험의 본질은 ‘아버지라는 거울에 나와 너를 비추어 가며, 모순의 미로 속 길 찾아 헤매이기’이다. 이들이 이성관계의 두 주체인 자신과 이성관계 파트너를 바라보는 혼란스러운 시선은 아버지로부터 기인한다. 이성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자신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알코올 중독 가정의 부모로부터 누더기 옷을 물려 입은 ‘중독자 딸’로 규정된다. 이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타인과 연결되기 원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도, 당당할 수도 없어 자신을 은폐시키는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다.

이성관계 파트너를 바라보는 연구참여자들의 시선에서도 아버지와 연인, 왕자와 거지의 모습이 엇갈리며 혼재한다. 이들은 이성관계 파트너에게서 거부하고 싶었던 부모와 갖고 싶었던 부모의 모습, 자신을 보완해 줄 수 있

는 완벽한 이상적 존재와 자신을 닮아 있는 현실 속 결합투성이의 상호 모순된 모습을 모두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이성관계 파트너에 대한 이들의 시선은 무시와 경계, 기대와 비난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하며 ‘너’에게 투영되는 아버지를 확인하게 된다.

아버지를 통해 바라보이는 ‘나’와 ‘너’의 만남인 이성관계는 행복과 고통, 밀착과 고립의 모순이 공존하며 회오리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딸인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는 ‘너’를 만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느끼는 행복을 맛보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힘겨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때문에 이들은 행복이 주는 온기에 대한 당김과, 힘겨움의 아픔에서 비롯되는 밀어냄 속에서 가까이가가지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이들의 관계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희생 안에서 ‘나’를 지워버리는 밀착된 관계와, 단절된 소통에 기반한 피상적 관계가 동시에 나타나는 밀착과 고립의 공존이 발견된다.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우리’는 다가갔다 물러나기를 반복하며 적절한 거리를 위해 관계를 조율해 나간다.

자신과 이성관계 파트너를 비추는 아버지라는 거울 방 속에 갇혀 있던 이들도 지금과는 다른 관계를 꿈꾸고 있다. 반복되는 패턴과 변화가 공존하는 관계 속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지금과는 다른 길을 찾아 나선다. 그 길은 끊임없이 자신과 파트너를 비추는 아버지의 거울을 깨트리는 것임을 인식하며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현실의 자신과 조금씩 분리해 가기 시작한다.

논 의

이성관계는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와 ‘너’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가 이성관계 경험의 본질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여러 모습과 어긋남의 교차점 위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나’의 모습

이성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나’는 ‘중독자 딸’이라는 벗어나고 싶은 정체성에 얽매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성관계에서 경험되는 ‘나’는 자신의 전체 모습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정체성이 아닌, 오직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이성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관계에 임하는 자세를 결정함은 물론, 연인에 대한 욕구와 바람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독자 딸인 자신은 사랑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중독자 딸인 자신은 남들과는 다른 존재이지만, 남들과 같은 정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강박적으로 노력한다. 중독자 딸이라는 자신을 자기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연인에게만은 가장 이해 받고 수용 받고자 하는 바람을 갖는다. 중독자 딸인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스스로 철회한 것에 대해 더욱 갈급함을 갖는 것이다.

사랑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자아상과 사랑 받고 싶은 욕구

우선, ‘중독자 딸’인 자신은 사랑 받을 가치가 없는, 하자(瑕疵)로서의 존재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런 자신임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의미 있는 존재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바람을 갖는다. 인간이 끊임없이 관계적 욕구를 추구하고, 특히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그 속에서 안정을 찾는 존재(유영주, 1993)임을 연구참여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친밀한 관계를 덜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Fisher et al, 2000)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중독자 딸’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위장한다. ACOA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도 거짓 말을 하는 특성(Woititz, 1983)을 보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위장한 형태일 수 있다.

남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자아상과 정상(正常)에 대한 강박

‘중독자 딸’인 ‘나’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존재로 인식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이성관계를 하는데 있어 뭔가 다르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기에 정상이 아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는 ACOA의 특성(Woititz, 1983)이 이성관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인가에 민감하다.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

이 소위 ‘정상인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에 천착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박적인 추구는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바람을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이성관계 경험에 대해 “실패”나 “헛연애” 등의 가혹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결국 자신은 정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강화하는 아이러니를 갖는다.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추측하려 한다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는 경향, 그리고 지속적으로 승인과 인정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ACOA가 갖는 일반적 특성(Woititz, 1983)이 이성관계 경험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독자 딸 - 외면하고 싶은 나, 하지만 가장 이해 받고 싶은 나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중독자 딸’이라는 자신은 가장 외면하고 싶은 자신이자, 가장 이해 받고 싶은 자신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신을 감추고 포장함으로써 ‘중독자 딸’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려 노력하지만, 자신이 ‘중독자 딸’이라는 것을 수용 받고 이해 받지 못하는 한,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온전히 수용 받고 사랑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아버지의 음주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를 고백하고 이해 받고, 수용 받아야 진정 자신의 모든 것이 수용 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너’의 모습

연구참여자들이 파트너를 바라보는 시선은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과 닮아 있다. 이성관계

에서의 ‘너’는 부모에 대한 거부의 시선과 기대의 시선을 모두 투영한다. 이러한 모순된 시선을 투영함으로써, ‘너’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혼란스럽다.

아버지와 연인의 피비우스 띠

연구참여자들이 아버지에 대해 갖는 시선은 모든 남성들에게로 일반화되고 있다. 무기력하거나 존중 받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호해야 했던 경험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남자에게 끌려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를 은근한 무시하는 혼재된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상은 딸의 친밀한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기존의 이론(Kearns-Bodkin & Kenneth, 2008; Levine, 2004)과 연관된다. 특히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의 일어나는 성적인 경계의 문제는 남성성에 대한 “안전거리 유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아버지를 바라보던 시선은 이들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인간은 파트너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며, 대상과 초기 관계의 상실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한다(최명민, 1999). 연구참여자들 역시 자신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자리에 대신 세우기 위해 이들은 꿈에 그리던 부모의 모습을 가진 연인을 꿈꾼다. 이들이 부모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대로 이상형의 남자를 설명하는 특성이 되고 있다.

바람과 현실의 부정 교합

자신이 바래왔던 부모의 모습을 연인에게서 발견하려다 보니, 이들이 원하는 연인은 이상적인 존재가 되어 버리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관계란 현실로부터의 도피, 새로운 신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들

에게 이성관계의 달콤함은 일종의 환타지를 제공한다. 때문에 상대도, 관계도 환타지의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때로 자신의 기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현실적인 상으로 조율해 나가는지 알지 못한다.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사람을 꿈꾸면서도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바를 환상으로 덧씌우기도 한다. 이 경우 그 환상을 덧입는 사람은 누구이든 상관없다. 이들의 사랑의 대상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덧씌운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이들은 자신이 습관적으로 아픈 남자를 만나왔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이성관계 파트너에 대한 부적응적인 선택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역기능적인 역할 유형을 반복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명아, 2001; 박현선, 이상균, 2001; Bantz, 2003, 이선화, 2004)를 일정 부분 뒷받침한다. ACOA는 대체로 비일관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Bantz, 2003)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파트너 선택에서의 이러한 패턴은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과도한 불안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아버지와 같은 파트너를 만나, 부모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불안은 연인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유사한 모습을 탐색하는 강박적인 관찰과 몰아가기로 연결된다. 부모의 삶과는 다른 삶이고자 하는 이들의 맹목적인 추구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모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부모의 삶 주변을 맴돌게 하는 아이러니를 가져

온다.

'우리'의 모순

연구참여자들의 이성관계 경험은 모순된 상황들의 역동적 공존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이성관계는 행복이자 고통이며, 밀착적이면서 단절된 관계이다. '나'도 보호하지 못하고, '너' 역시 지켜주지 못하는 피학과 가학이 공존하면서, 부정적 패턴을 반복하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고정되거나 정체되지 않은, 역동적인 연구참여자들의 관계 양상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하나의 측면이 부각된 단편적 설명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폭넓은 시선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행복과 고통의 공존

이들은 이성관계 안에서 부모조차 줄 수 없었던 충족을 느끼며, 사랑 받음을 경험한다. 때문에 ACOA들이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Martin, 1995)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원가족을 비롯한 여타의 관계에서 이러한 친밀함을 느껴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성관계가 제공하는 이러한 '멋진 신세계'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혼란된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특별한 세계가 된다.

하지만 특별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성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불안이나 자기희생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멋진 신세계'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이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투신(投身)의 노력인 것이다. 여기에 원가족에서 건강한 관계를 학습하지 못함으로 인한 관계에서

의 미숙함과, 낮은 자존감, 불신 등이 맞물리면서 이들의 대가는 증가한다. ‘중독자 딸’이라는 정체성 역시 이들의 어려움을 배가시킨다. 이들은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친밀한 관계에서 일반적인 갈등과 어려움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중독자 딸’인 자신의 결격 사유로 자기귀인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행복을 선택하지도, 고통을 회피하지도 못하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밀착과 단절의 공존

연구참여자들의 이성관계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절된 관계이자 억압적으로 느껴지는 밀착된 관계이다. 자율적이면서도 친밀함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적절한 거리의 건강한 관계와 대비되는 관계의 양상을 보인다. 이들의 이성관계는 파트너와의 진정한 소통의 만남이 부재한다. 진정한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닌 감추고 포장된 ‘거짓 자기’와, 나의 기대가 투사된 ‘환상 속 그대’의 만남이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극단적으로 갈등하거나 단절된 이들의 부모의 모습, 그리고 부모와 연구참여자들의 관계와도 닮아 있다. 이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부모를 찾지 않았고, 부모를 자신의 편으로 여기지 않았었다.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연구참여자들의 외로움은 이성관계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듯한 이들의 관계에 ‘나’와 ‘너’의 경계가 분리되지 않은 혼연 일체의 밀착된 관계 양상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성관계 파트너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대가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이들에게 의존이란 단순히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수준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생존을 거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절대적 의존은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든다. 연구참여자들은 ‘너’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너’에 흡수되어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간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 생각은 사라지고, 상대의 욕구나 감정,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자신의 ‘사라짐’을 통해 그들로부터 도피처와 위로, 사랑받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들은 밀착되어 혼재된(mashed) ‘우리’를 형성한다.

피학과 가학의 공존

연구참여자들은 연인과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며 자기를 희생한다. 그러한 자기희생의 과정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피학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ACOA가 일방적으로 주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받는 ‘perfect doormat(학대 받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의 역할(Bantz, 2003)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러한 모습은 충성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충성적인 ACOA의 특성(Woititz, 1983)과도 연관된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희생이라는 아이러니를 갖고 있다. ‘너’만 남고 ‘나’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과정이 철저하게 ‘너’는 상관없는 ‘나’만의 의지이자, ‘나’만을 위한 것이다. 상대에게 버림 받지 않기 위한, 그리고 사랑 받기 위한 혼자만의 독단적인 노력인 것이다. 이들은 상대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피면서도 상대가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들에게는 관심 밖이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너’가 ‘나’의 온전한 의존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순간, ‘너’에 대한 감정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너’가 ‘나’의 자기

중심적인 혼자만의 틀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된 후 느끼는 분노, 즉 상대가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들은 관계에서 ‘너’를 소외시키고 비난함으로써 가학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 결국 상대의 모습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들은 혼자만의 피학과 가학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패턴과 변화의 공존

연구참여자들은 이성관계 경험은 부정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순환의 과정 어딘가에 매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돌아볼 때 이전과는 다른 지점을 지나가는 나선형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반복되는 부정적 패턴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성관계 경험에 대해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바라본다. 자신을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결합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자신의 이성관계 경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정상’이라는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관계에서의 고통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를 통해 이들 역시 이성관계를 통해 자신과 상대 그리고 관계에 대해 배우고 문제 해결을 훈련해 감으로써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부각되던 ACOA의 이성관계 경험이, 역동적이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폭넓게 바라볼 때, 긍정적인 경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이성관계를 통해 자신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

는 기회와 동기를 가지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여, 자아개념을 변화 또는 강화시키는 출발점(정향인, 2001)으로 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미혼 성인 여성들의 이성관계 경험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독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ACOA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성관계 경험은 개인내적, 대인관계적인 다양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경험으로, 이를 살펴봄으로써 ACOA의 다양한 특성들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성관계 경험은 폭넓은 맥락적 이해를 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관계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둬으로써 이들 관계에서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 가정의 미혼성인 자녀들의 이성관계 경험을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한 전체로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정적 자아상과 파트너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기대, 관계에서의 불신과 불안, 의사소통과 갈등 대처의 미숙함 등의 부정적 측면은 물론, 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함과 행복, 관계에 대한 성찰과 성장 등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양한 특성과 경향들이 이들의 이성관계 경험 속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이성관계를 경험하는 자녀의 정체성과 이성관에 미치는 영향이 심층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이성관계의 역동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그동안 알아낸 등의 자조

모임에서 경험적으로 강조되었던 ‘분리’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이러한 ‘분리’를 위한 구체적 임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자조모임은 가족 구성원 중의 알코올 중독자와의 분리를 모임에서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분리는 ACOA에게도 건강한 이성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분리는 기존의 자조모임에서 제시되는 내용인 음주 문제에 대해 초연해 지거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한국 알아낸 본부, 2012)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규정이나 자아상, 이성관계 파트너에 대한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 이성관계의 경험에 대하여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 등 이성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슈에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문제가 가족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알코올 중독 가정의 특성과 연관된다. 이에 건강한 이성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과, 삶에서의 준거에 있어서도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분리’를 위한 임상가의 실천적인 개입은 ACOA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의 ‘분리’와, 이들이 이성관계 파트너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의 ‘분리’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이성관계 파트너에 대한 현실적 기대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ACOA의 친밀한 관계 맺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기대에 대한 재고와 함께, 이들의 보다 긍정적인 이성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관계

에서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를 통해 ACOA의 이성관계 경험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제시되었다. 이들 역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또한 이성관계 경험이 ACOA의 건강한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우선, 원가족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학습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학습과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임상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전략이나 의사소통, 자기 주장, 적절한 경계의 설정과 같은 관계에서의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ACOA가 가진 특성에 기반하여 제공될 때 그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갈등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임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이 ACOA로서의 자신의 결함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수용하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결혼에 대한 신념과 기대를 확인하고 결혼의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며,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위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결혼생활을 답습할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졌던 ACOA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ACOA의 성(性)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를 통해 ACOA들이 친부에 의한 성 학대나 부모의 보

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친지나 타인에 의한 성학대를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성적 경계의 혼란은 아버지의 접근을 성적 학대와 친밀감의 표현 사이의 모호한 경험으로 인식하게 함을 확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성관계 파트너와의 친밀감 표현에 있어서도 성적인 접근으로 이해해 아예 거부하려 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파트너와의 친밀함을 주로 경험하게 되는 극단적인 모습과 연결되고 있었다. 이는 직접적인 성학대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성에 대한 적절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확립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 이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ACOA에 대한 사정과 개입에 있어 이러한 성과 관련된 부분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성은 이성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주요 이슈인만큼, 이들의 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정을 통해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김명아 (2001).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간호학회지, 29(6), 1206-1220.
- 김순기 (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진 (2009). 알코올 중독 가정 성인 자녀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2007). 알코올 중독자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생활 적응.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련·정선영·김정희 (2004).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여성 ACOA의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317-343.
- 박현선·이상균 (2001). 알코올 중독자 가정 청소년 자녀의 성인아이 성향과 심리사회적 문제. 한국사회복지학, 46, 118-144.
- 신민섭·오경자·홍강의·김해숙 (2004). 가정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11-636.
- 엄혜정·정혜정 (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4(2), 137-152.
- 오현숙 (2003). 아동기 성학대 피해여성의 치료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1984). 신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91-121.
- 이선화 (2004).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기초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향인 (2001). 기독교청년의 이성관계 향상을 위한

-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정화 ·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명민 (1999). 대상관계 부부치료의 이론적 고찰 및 활용.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7(1), 31-52.
- 한국알아닌본부 (2012). 알라틴 이야기들, 분리(초연). 서울: 한국알아닌본부.
- 한국알아닌연합회 (2010). Al-Anon/Alateen 제안된 서론. <http://www.alaonokorea.or.kr>
-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Bantz, J. L. (2003). *The Impact of attachment on the romantic relationship of adult daughter of alcoholic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at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Colina, T., L. (1997).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d their purported need for interpersonal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 Domenico, D. & Wimdle, M. (1993).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function among middle-aged female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659-666.
- Fischer, K. E., Kittleson, M., Ogletree, R., Welshimer, K., Woehlke, P., & Benschoff, J. (2000).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lcoholism and family dysfunction to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4), 151-156.
- Gallagher, P. (2004). *Quality of attachment and perceived parental injunctions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d non-alcohol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ton Hal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Services.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외 역(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현문사.
- Harter, S. L. (2000).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3).
- Houlihan B. L. (2001). The intim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USA.
- Kelley, M. L., Nair, V, R., Tanaya, C., Thomas F., Steer, K., & Fals-Stewart, W. (2005). Retrospective reports of parenting received in their families of origin: Relationships to adult attachment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ddictive Behaviors*. 30(8). 1479-1495.
- Kearns-Bodkin, J. & Kenneth E. (2008). Relationship Functioning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 Drugs*. 69(6), 941-950.
- Klostermann, K, Chen, R, Kelley, M., L., Schroeder, V., M., Braitman, A., L., & Mignone, T. (2011). Coping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Substance Use & Misuse*. 46(9), 1162-1168.
- Larson, J. H., & Thayne, T. R. (1998). Marital Attitudes and Personal Readiness for Marriage of You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16(4), 59-73.

- Levin, K. (2004). *The impact of Parental attachment, expressiveness, parental substance use, and childhood maltreatment on young adult interpersonal rel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Martin, J. I. (1995). Intimacy, loneliness, and openness to feeling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Social Work*, 20(1), 52-29.
- Olmsted, M. E. (1997). *If you don't become one, you'll marry one; Close relationship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 Sage Publication, Inc. 유태균 역(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남.
- Rangarajan, S. (2005). *Lonely in a crowd: The social and emotional consequences of growing up with parental alcohol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Shaw, K. (2009). *Interparental violence and child abuse among alcoholics household; Relationship to adult self-esteem and dating violence*. Virginia Consortium for Professional Psychology.
- Steer, K. E. (2008). *Parental alcohol abuse: Relationships to intimacy, trust, identity, self-concept, and family environment in undergraduate men and women*. Virginia Consortium for Professional Psychology.
- Watt, T. T. (2002). Marital and Cohabiting Relationships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Evidence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Issues*, 23(2), 246-265.
- Williams, G. P. (1998).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arental bonding, adult attachment, and spirituality*.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 Woititz J. G. (1983).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Health Communication, Inc. FL
- 1차원고접수 : 2013. 7. 22.
심사통과접수 : 2013. 9. 10.
최종원고접수 : 2013. 9. 23.

Romantic Relationship Experience of Unmarried Female ACOA Whose Father is Alcoholics

Hyang Sook Kang

In Young Han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Alcohol addiction is known as a “family disease” that could not only damage the alcoholics themselves physically, mentally,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but is also severely detrimental to the family. In particular, it has negative effects on their children, and thus hindering the children from maintaining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sex when they become adults. This study examined the romantic relationships of the unmarried women of paternal alcoholics, in order to further understand their relation experience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The research question is this: what are the romantic relationships of the unmarried women of paternal alcoholics like?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the phenomenological method designed by Giorgi which seems to be more suitable for comprehending the complicated and intricate nature of developing romantic relationship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lve into this relatively unknown area of research interest. From a counseling center area and a therapeutic communities, and the *알아닌*, among the unmarried female ACOA who among the 20 to 39-year-old female ACOA whose father had participated in a therapeutic program or received medical treatments for their alcohol addiction.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2011 to February, 2012. The data was collected by the method of in-depth interview. According to the interview results, 824 units of meaning were extracted. By transferring the units of meaning consisted of colloquial expressions that the subjects spoke into the academic terminology, these units of meaning were integrated into five categories and twelve theme clusters. These components are as follows. 1) I see ME: the personal identity of the daughter of an alcoholic, 2) I see YOU: You who are overshadowed by my father, 3) I meet YOU: the Hedgehog Dilemma, 4) WE also stand up: the tuning of relationships, 5) New WE: go on a trip agai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ovided profound insights into the ACOA who received scarce attention in the field and practice of addiction. Second, this study provides the foundations of discussion for the concept of “separation” that have been empirically emphasized in self-help group as well as the concrete rationale behind the intervention for the “separation.” Third, the opportunities of self-correction,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specific strategies on developing intimate relationships should be provided. Fourth, thorough investigation and active intervention about sexual issue should be provided and conducted for the ACOA.

Key words : ACOA(Adult Children of Alcoholics), romantic relationship, qualitative research